



한국대댐회는 댐 관련 시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등에 따른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1972년 창립되었고, 어느덧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2년은 미국이 우주왕복선 개발에 나선 해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이 세계를 넘어 우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현대식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잡기 힘든 역사 발전의 격차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비록 작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을 일으키고 국력을 높이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손으로 댐을 만드는 일은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맑고 풍부한 수자원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성장과 산업도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조사, 연구 및 기술교류 등을 선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대댐회의 중요한 축으로서 다양한 분과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우리는 수자원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에 힘입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댐에 담아온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행복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대댐회의 발자취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이자, 전 세계가 공유하기 바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간에 걸어온 모든 역사를 기록한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번 『50년사』를 통해 출범 당시 간절했던 초심을 돌이켜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한국대댐회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고도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이자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도전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양적인 발전을 넘어서 보다 성숙한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발간하는 이 한 권의 책자가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방향을 탐색하고 가늠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5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주신 집행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도 모두에게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사)한국대댐회
회장 박재현